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용갑 · 정동영
박희승 · 박민규 · 서영교
이성윤 · 허 영 · 문대림
김동아 · 조계원 · 송옥주
이병진 · 신영대 · 김우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.

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역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

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함(안 제101조제1항).
- 나.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6조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1항 중 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”를 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”로 한다.

제106조 중 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”를 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감독 기관) ① 근로조건 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</u> 근 로감독관을 둔다.	제101조(감독 기관) ① ----- ----- <u>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 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에</u> -----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 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<u>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</u> 위임할 수 있다.	제106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<u>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특별시장 · 광역시 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 별자치도지사에게</u> ----- --.